

한형조 무문관 탐방

31

가섭의 깃대

*아난이 가섭에게 물었다. "세존께서 금란가사를 전하신 이외에 따로 무언을 전해주셨습니까?" 가섭이 말했다. "아난아, 아난이 '예' 하고 응답하자, 가섭이 말했다. "문 앞의 활간(刹竿)을 넘어뜨려라."

*나 해가 말한다. "만일 여기서 한 마디를 적실지(親切) 내릴 수 있다면 영산(靈山)의 회상(會上)이 지금도 엄연함을 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비바시불(毘婆尸佛)이 아득한 시절부터 마음을 기울여 수행했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송하여 가로되, "질문은 어찌 되었건 대답은 적실하다. 몇 사람이나 여기서 눈을 부릅떴을고, 형이 부르고 아나가 대답하여 집안 망신을 시켰는데, 계절(陰陽)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불어라니."

迦栗刺竿: 迦栗, 因阿難問云, 世尊傳金 髮沙外, 別傳何物, 葉喚云, 阿難, 難應諾, 葉云, 倒門前刹竿著, 無門曰, 若向者裏, 下一轉語親切, 便見靈山一會, 儼然未散, 其或未然, 毘婆尸佛, 早留心, 直至而今, 不得妙諦, 問處何如答處親, 幾人於此損生節, 兒呼弟癡揚家醜, 不願陰陽別是春.



그림 · 이준석

은 문밖의 활간을 넘어뜨리라고 말한다. 활간을 넘어뜨리는 것은 법상 앞의 자리를 맡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법이 끝났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공연이 끝났으니 그만 무대를 걸으라는 말이다.

해개는 보증한다. 가섭의 설법을 알아들은 사람은 절대의 경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친절(親切)"이란 남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의 맥락이나 문장의 의미를 자각적으로 대면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해개는 저 영산의 회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공연이라고 말한다. 진리에는 시간이 없다. 그것은 누차 말했듯이 일상적 시간의 계기 너머의 초시간적 사건이다. 절대를 돈(頓), 즉 초월적으로 파지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비바시불은 과거 7불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다. 아득한 시절부터 수행을 했어도 돈오의 비밀을 모른다면 진리(妙)는 아득히 멀리 있을 뿐이다.

해개는 마지막 구절에서 가섭과 아난이 벌인 이 소동이 방편의 고심이 있음을 밝히기를 잊지 않는다. 형인 가섭이 묻고 동생인 아난이 대답한 것은 집안 망신을 드러낸 꼴이라는 것이다. 왜 그러는 지는 익히 살펴 본 바이다.

'계절아닌 봄'에서 봄을 느껴라

영산회상 지금도 엄연... 진실 의발에 있지 않다

행과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아난은 석가의 사촌동생이었다. 공교롭게도 보리수 아래에서의 성도(成道)와 때맞추어 태어나, 석가가 열반에 들때까지 곁에서 시종했다. 석가의 법문을 모두 외워 불교전파에 이바지했던 그는 그 뛰어난 기억력으로 지혜가 제일이라는 평을 받았다. 선이 아난에게가 아니라 가섭에게 석가의 법문을 물려 준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설정에서도 교에 대한 선의 혁신적 옹호를 읽을 수 있다.

영산의 회상을 기억한다. 경전을 떠나고 연어가 침묵한 자리에서 석가는 꽃을 들었고 가섭은 미소로 그 꽃을 받았다. 선의 진리는 처음 이렇게 전해졌다. 2조 가섭은 평생 석가를 모시고도 공극을 엿보지 못한 아난을 깨우치려 했다.

해능이 그러했듯이 진실은 의발(衣鉢)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해주고 전해받은 것은 대체 무엇인가. 아난은 이것을 가섭에게 물고 있다. 이 질문에 가섭은 아난을 그윽히 불렀다. 묻고 답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몇 차례 짚어본 바 있다. 그것은 내가 곧 부처라는 돈오의 진실을 충격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아난이 이 물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아난은 가섭의 부름에 '예' 하고 대답을 했고, 이에 가섭

다시 말하지만 진리는 화두에 있지 않다. 경전이나 교설, 화두나 공연은 모두 진리의 언덕으로 건네주는 뗏목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궁극적 진리와 동치될 수 없다. 진리는 내가 나의 본질을 파괴하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송의 마지막 구절에서 해개는 그곳의 풍경을 잠깐 보여준다. "음양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봄!" 음양은 시간적 순서, 계절의 교대(消隱)를 가리킨다. 그것은 일상적 의식에 투영된 시공의 질서를 암시하고 있다. 절대선은 그러나 이 인식론적 제약과 함께 너머에서 일어나는 초시간적 사건이다.

우리는 그곳을 일종의 박제된 공간으로 연상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선은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말라고 늘 경계한다. 그곳은 화색빛의 어둠이나 파리한 영혼들의 죽은 세계가 아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꽃이 진다." 선은 죽음과 무기력을 무엇보다 타기한다. 초기불교는 열반을 의지의 완전한 소멸에서 찾는, 어느 면에서는 음울한 색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은 이와는 다르게 생명의 약동과 축복을 고무찬양해 마지 않는다. 그곳은 별세계 아닌 별세계이다. 그곳에서 그대는 진한 봄내음을 맡고 있는가. 해개는 그렇게 묻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문세고 단단하여 파괴되지 않는 물질로는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를 최상으로 친다. 금강석은 단단한 것 외에도 깨끗함, 광채가 남, 고귀함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금강경> <금강삼매경> <금강정경>과 같은 경전외에도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금강좌, 지혜를 금강지, 세계를 금강계라고 하는 등 금강석을 가지고 불교의 이상적 경지를 비유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들도 금강신중, 금강역사, 금강양차와 있고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중에는 금강검, 금강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신장들은 모두 불보살이 정법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화현된 분들로 일 반 중생계에 속해 있는 신장들(예컨대 산신이나 용신 처럼)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수행을 해서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는가 부처의 지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보살도라고 하는데 보살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므로 금강신(金剛身)이라고 부른다. 이 금강신은 변하고 없어지는 중생의 몸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열가지의 불과불변의 마음으로 몸을 삼고있다.

금강같은 보살의 몸은 첫째 무량무변한 온갖법을 모두 깨달으려는 마음이다. 무량무변한 온갖 법을 깨달았다 함은 세상에 펼쳐진 일체의 법이 본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둘째, 형인 가섭이 묻고 동생인 아난이 대답한 것은 집안 망신을 드러낸 꼴이라는 것이다. 왜 그러는 지는 익히 살펴 본 바이다.

法數로 배우는 불교

<41>

십금강신(十金剛身)

둘째, 시방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려는 마음이다. 보살은 중생의 생사와 고통을 자신의 생사와 고통으로 본다. 진정한 해탈은 중생 모두와 더불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생과 보살의 본성은 같기 때문이다. 셋째, 한없는 세계를 부처의 세계로 정엄 하려는 마음이다. 한없는 세계라 함은 중생 모두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세계이다. 중생 중생마다의

은 더불어 짓고 더불어 받는 것이다. 본래의 참된 마음세계에는 부처와 중생 그리고 보살 자신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모든 부처님께 항상 널리 공양하려는 마음이다. 공양이란 바치고 기른다는 뜻이다. 모든 법의 근본이며 일체중생의 올바른 안목이신 부처님 전에 항상 마음을 바침으로써 공덕을 쌓고 기쁨을 이루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체제법을 모두

변하지 않는 보살의 10가지 서원 "온갖법 깨달아 시방중생 제도하리"

마음엔 버려질 천양각색의 무수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끝이 없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세계를 정화시키고 제도하여 하나의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세계, 즉 부처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다.

넷째 자기가 수행한 착한 공덕의 결과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회향하려는 마음이다. 수행의 공덕은 자신이 짓고 자신이 혼자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남이 없다면 자신도 있을 수 없듯이 공덕

진실하게 체험해 보려는 마음이다. 보살의 마음에는 의심과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럴려면 법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중생의 법, 부처의 법을 따로 나누지 말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럼 무엇이 일체법인가? 곧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의 이법이다. 일체 마음을 항상 관찰해보면 법이 무엇인지가 꼭 드러나는 것이다. 일찍이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으려는 마음이다. 부처님

의 법은 일체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고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한다. 보살은 고통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받겠다고 했다. 여덟째는 중생을 교화하되 싫증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하지않는 마음이다. 보살의 마음은 가없는 마음이며 변함 없는 마음이다. 진리를 깨달은 마음에는 무한한 힘과 사랑이 팍팍하다. 온갖 중생에게 골고루 주어도 조금도 줄어 들이 없는 마음이 있으므로 힘들거나 그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아홉째는 자기의 수행을 완성하려는 마음이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자신을 제도해야 한다. 자신의 밝은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므로 눈을 깨우쳐 주는 일은 자기의 깨달음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열번째는 다른이의 온갖 소원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다. 불안해하고 부족해하고 불행한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보살은 중생의 이러한 마음을 쉬게하고 만족을 얻게 한다. 때에 따라 줄수 있는 것은 모두 주면서도 그들의 욕망을 고치지 않고 남으로부터 얻으려는 마음을 없애게 한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사람들에게 죽고 싶고 없어질 무상수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불멸한 금강불교신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금강불교신이란 이렇게 보살의 원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34

개념의 존속

김용운

지난호 본 단에서 '언어도단과 기호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제는 언어도단의 '진여(眞如)의 세계'를 그의 일갈(一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제자의 행동에서 보았다. 또한 그것은 마치 수학에서의 무한에 관한 개념화와 기호화나 개념화 과정과 일맥상통했음을 말했다. 그러나 선(禪)은 지식이 아닌 마음에서 얻은 답음이다. 같은 행동일지라도 사람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수학은 지(知)의 세계에 속한다. 그 속에서 여러 지식을 흡수하면서 그 틀에서만 통하는 생각과 논리가 정착되어 있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문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그 세계에 머무르고만 있다면 새로운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다.

임제화상은 이 상황을 '흑만만지(黑漫漫地)·어둠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한다. 선(禪)은 모든 기존의 틀을 깨고 또 깨고 부정을 거듭하며 스스로 문제를 설정한다. '언어, 지식, 기존의 틀 모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야 한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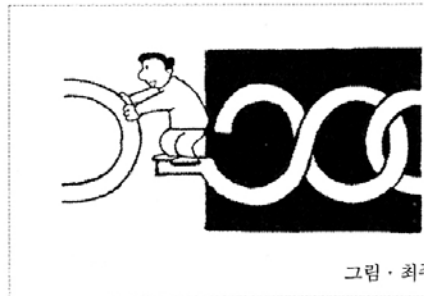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러운 놀! 이제 나의 법도 사라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그친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너는 안되겠다'는 부정적인

만 나타나는 독자의 세계이므로 임제가 사라질 때는 이미 그 세계도 없어지며 그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야 된다.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여라'라는 말도 있다. '죽여라'로 표시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중립적 누구정신이다. 스승의 법이 사라질 때가 됨으로써 오히려 제자의 세계가 열린다. 이 점이 수학과는 다르다. 처음 무한 세계를 온몸으로 인식한 수학자는 그것을 기호화(개념화)함으로써 제자에게 전한다. 기호화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수학은 그것을 기호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지에 진입할 수 있다. 수학자는 스스로 개척한 무한의 내용을 기호화하고 후학은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다. 가령 처음 발견된 무한의 세계를 '∞'로 기호화하면 무한을 더한 것, 즉 '∞+∞' 또는 곱한 것 (∞×∞), 등 온갖 무한을 생각하며 새롭게 기호화·개념화한다. 무한세계보다 더 큰 무한세계, 무한세계를 무한개만큼 겹친 세계, 수학자의 상상력은 광활해 간다. 그러나 이들 사색의 결과는 반드시 기호화(개념화)되어야만 수학자의 공중 재산일 수 있다. 무분별과 분별의 세계가 지닌 근본적인 성격이 기호 또는 개념화의 존속 유무에서 나타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기존의 틀 깨고 자신의 세계 구축

수학 선구자의 길 따르며 새경지 개척

다. 수학의 선구자가 처음 무한을 인식하고 일단 기호화가 끝난 후 후학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임제가 죽음에 임하게 되자 조용히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은 후 나의 정법(正法)을 잇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때 한 제자가 나서며 "어찌 감히 스승의 정법을 열게 하려는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임제화상은 "그렇다면 나의 정법이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제자는 "말을 들은 임제는 틀 모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야 한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그 제자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암시한다는 것이다. 본래 임제의 세계는 분별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의 정법이 정립된 것이라면 이미 기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정법의 세계는 자신 하나의 세계이며 진여세계는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으며 곧 '나의 정법을 없애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까지 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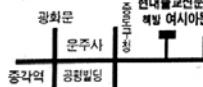
또한 그 내용을 말하려는 것은 더욱 격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제 나의 법이 사라질 때가 되었다'는 말이 오히려 긍정적 의미가 된다. 선에서의 진여의 경지는 나에게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 그 동안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 만물이 깨자리로 향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개척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전역주/세계사/8000 → 5000원
- 태고집 설서 편 / 8000 → 5000원
- 선이란 무엇인가 장순용 역음 / 10000 → 6000원
- 대승기신론 마명 / 8000 → 5000원
- 한산시 김달전 역주 / 10000 → 6000원
-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용 / 12000 → 6000원
- 노자 그 불교적 이해 장산대사 / 10000 → 6000원
- 자아의 책 박철화 옮김 / 4000 → 2000원
-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심재용 / 4000 → 2000원
-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김일규 / 4000 → 2000원
- 보살은 누구인가 복우 / 4500 → 2000원
- 산거림기 김달전 / 3500 → 2000원
-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복욱 외 / 15000 → 8000원
- 초서자전 편집부 / 30000 → 15000원
- 중국 불교 사상사 키우라 키우라카 / 4000 → 3000원

- 밀교의 역사와 문화 윤희미 외 / 5500 → 3000원
-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시토 미즈오 / 4200 → 3000원
- 원로의 인식과 논리 신현숙 / 3500 → 2000원
- 불교의 현대적 조영 고수불자연합회 / 5500 → 3000원
-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카라 / 6000 → 3000원
-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콘즈 / 5500 → 3000원
- 중국 불교 KS 케네스 쉐 / 5000 → 3000원
- 모법연화경 장우 / 8000 → 5000원
-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희 외 / 5000 → 3000원
-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희 / 4500 → 3000원
- 논어와 선 한도 다이가 외 / 4500 → 3000원
- 푸른 산빛을 깨치고 진보삼 / 4500 → 3000원
-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키야 / 3300 → 2500원
- 소승 대승 비교사치야 / 4000 → 3000원
-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 논란플러니 레이븐슨 / 3500 → 2500원
- 환상의 타임머신 손형성 / 3000 → 2000원
- 금강경 김지현 / 4500 → 3000원
- 중화의 지혜 중국민중사상연구소 / 5500 → 3000원
- 선정쌍수의 전개 안보광 / 5000 → 3000원
- 붓다와 다르마 BR 알베르카르 / 5500 → 3000원
- 인식과 초월 랫트리 마사야키 외 / 4300 → 2500원
- 뜨뜨라 불교 입문 SB. 다스금마 / 4000 → 2500원
-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관 임계유 / 4500 → 2500원
- 대승불교의 사상 우에다 요시부미 / 3500 → 2000원
- 천태 법화의 사상 태우라 시로우 외 / 4000 → 2500원
- 일본 불교사 이영자 옮김 / 5000 → 3000원
-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불교시대사 / 6500 → 3900원
-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300 → 2500원
- 불교학개론 강의집 / 4500 → 2700원
- 죽는 법을 모르는 데 사는 법을 어찌 알라 조오현 / 4500 → 2700원
-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 김정효 / 4800 → 3000원
- 미륵상생경 의 경전연구모임 / 2500 → 1500원
- 아미타경 의 / 2500 → 1500원
- 옥야경, 선생경 의 / 2500 → 1500원
- 유마경 / 2500 → 1500원
- 금강경, 승만경 / 2500 → 1500원
- 지장본원경 의 / 2500 → 1500원
- 본원행원품, 판세음보문품 의 / 2500 → 1500원
- 법구경, 사십이장경 / 2500 → 1500원
-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의 / 2500 → 1500원
- 부모은중경 의 / 2500 → 1500원
- 선문선답 조오현 / 5000 → 3000원
- 행복한 마음 김정성 / 5000 → 4000원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